



## 7 일본 SPAP, 중국의 국제 공동 연구 동향 분석 보고서 발표

⇒ 일본과학기술진흥기구(JST) 산하 아시아태평양종합연구센터(SPAP)는 중국의 국제 공동 연구 협력 동향 및 인적 교류를 분석한 영문 보고서\*를 공개('26.3)

\* Recent Trends in China's Collaborative Research with Developed Countries

※ '24년에 발표한 일본어 보고서를 영문 버전으로 재공개

● **(국제 공동 연구 동향)** 중국 학자들이 공동 저술한 국제 공동 연구 논문\* 수를 바탕으로 중국의 국제 공동 연구 협력 현황을 분석

\* 학술 정보 검색 및 분석 플랫폼 WoS(Web of Science) 데이터베이스에 등재된 논문 중 두 개 이상의 국가/지역 저자들이 공동으로 발표한 논문을 의미

- **(전체)** '22년 중국의 국제 공동 연구 논문 수는 14만 7,000편(전 세계 공동 연구 논문의 24.9%)으로 '13년 대비 2.9배 증가

※ '13~'22년 기간 동안 중국과 연구 협력이 가장 많았던 상위 5개국은 미국(431,049편), 영국(120,975편), 호주(105,350편), 캐나다(76,785편), 독일(74,482편) 순

- '21년 중국의 전체 연구 논문 중 국제 공동 연구 논문의 비율은 24.3%로 전년에 비해 줄었고, 영국(73.3%), 프랑스(66.2%), 독일(62.7%), 미국(46.2%), 일본(36.1%) 등 다른 국가들에 비해 현저히 낮은 수준을 기록

- 미국이 중국의 전체 국제 공동 연구 논문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'19~'21년 39.2%로 '17~19년(44.5%) 대비 약 5% 감소

- 이는 해당 기간 팬데믹과 더불어 미·중 갈등 등 비학문적인 요인들로 인해 국제 연구 협력에 대한 중국의 지향성이 약화되었음을 시사

- **(분야별)** 과학연구 분야별로는 '13~'22년 중국의 국제 공동 연구 논문 중 60% 이상이 공학(120,185편), 화학(110,742편), 재료과학(109,638편), 임상 의학(83,189편), 물리학(77,967편)에 집중

- '13~'17년 대비 '18~'22년에 국제 공동 연구 논문 수가 가장 크게 증가한 분야는 환경·생태과학(178.3%), 공학(158.3%), 농업과학(134.9%), 컴퓨터 과학(120.9%), 재료과학(111.5%), 지구과학(98.2%) 등으로 대부분 두 배 이상 증가

● **(인적 교류)** 중국인 국제 유학생 수와 연구자 수를 통해 중국의 대외 인적 교류 현황 및 이동성을 진단

- **(국제 학생)** 중국인 국제 학생 수는 팬데믹 시기를 제외하고는 지난 10년 동안 꾸준히 증가해 '21년 102만 명을 초과

- 10여 년 전에는 미국과 영국으로의 유학이 전체의 60% 이상을 차지했으나 현재는 호주, 일본, 한국 등 다양한 국가로 유학 목적지가 확대
  - ※ '21~'22년 국가별 중국인 유학생 수는 미국(290,086명), 영국(151,690명), 호주(141,011명), 일본(103,882명), 캐나다(100,075명), 한국(67,348명) 순
- 한편, 중국에 체류 중인 외국인 유학생의 국적은 '11년에는 한국 다음으로 미국, 일본 유학생이 다수였으나, '18년에는 여전히 1위인 한국(50,600명)에 이어 태국(28,608명), 파키스탄(28,023명), 인도(23,198명) 순을 기록
  - ※ 중국 내 외국인 유학생 통계는 '18년 이후 미공개
- **(연구자)** 중국의 과학기술 분야 연구자 중 다수는 중국에서 대학을 졸업한 후 해외에서 대학원 과정에 진학
- 중국 연구자들이 가장 많이 진출한 지역은 미국, 유럽연합 등이며, 취업 후 중국으로 돌아오는 연구자가 증가

출처 : 일본 아시아태평양종합연구센터(SPAP) (2026.3.)  
[https://spap.jst.go.jp/investigation/downloads/2024\\_tp\\_01\\_en.pdf](https://spap.jst.go.jp/investigation/downloads/2024_tp_01_en.pdf)